

2025년 9월호

정겨운 모동마을 초가를 풍경

상관저수지 길목,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요한 시골 풍경 속에 모동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끝여름의 햇살 아래, 주민들은 붉은 고추와 푸른 열무를 정성스레 보살피고, 어르신들은 도량을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린다. 백중날에는 함께 닭죽을 끓여 먹고 신나는 노래자랑을 펼치며,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상관 모동마을 주민들이 노래자랑 한마당이 끝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삶의 풍경 고산 김지연 이야기 ... 10P ● 화보 완주군 일지리박람회 ... 12P
- 완주문화재단 꿈의 극단과 무용단 ... 14P ● 완주에서 보낸 예술방학 ... 16P



#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던 단합의 마을

## 휘둘러 마을 한 바퀴

9월 9일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는 길목. 비가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나섰다. 이 시기 주민들은 수확으로 분주하다. 상관 묘동마을에서도 밭 곳곳에서 작업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종복(68) 어르신은 “비가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려고 나왔어요. 고추를 빨리 따줘야 또 잘 자라거든요. 늦어지면 열매가 상하기도 하고 다음 수확에도 지장이 생기죠”라며 손을 멈추지 않고 열매를 따 내려 했다.

회관 앞 밭 한쪽에서는 이귀환(65) 씨는 밭 한쪽에서 열무를 뜯고 있었다. “열무는 이렇게 바로 뜯어서 물김치로 담아야 맛있어요. 조금만 늦어도 무르거나 쓰거든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채소를 모으던 그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로 자급자족하려고 해요. 파는 것보다는 직접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죠”라며 웃었다.

## 햇살과 웃음이 어우러진 고추밭 풍경

복작복작한 마을회관 문을 나서 고추밭으로 향하는 이종복 어르신을 강수재(68) 어르신과 박미숙(60) 씨가 뒤따랐다. 토요일 점심에 쓸 고추를 따러 가는 세 사람이 마치 ‘묘동마을 3총사’ 같다. 마을 토박이 박미숙 씨와 옆 동네와 김제에서 시집온 이종복, 강수재 씨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언제나 함께 모여 일하거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서 그렇다.

햇볕을 받아 빨갭게 익은 고추와 푸릇한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고추밭에서



세 사람은 팔토시와 모자, 앞치마를 꼼꼼히 챙겨 입은 뒤, 작고 초록색인 고추만 골라 빠르게 따다. 수재 어르신은 “간장에 졸여 반찬으로 먹을 고추라서 너무 큰 것을 고르면 식감이 부드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약을 쓰지 않은 종북 어르신의 고추밭은 싱싱하지만 벌레가 먹은 흔적도 눈에 띈다. 서로의 농사 고민, 잘 자란 작물에 대한 감탄 등이 오가는 고추밭에 잔잔한 웃음이 스며든다. 마을 안팎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소박한 일상이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백중이면 어김없이 모여 밥상 차리는 마을**

농사꾼들에게 백중(百中)은 1년 농사의 고비를 넘기며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다. 논밭의 김매기가 끝나고 곡식이 여물기 전, 마을 사람들은 모여 풍년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전통 명절이 차츰 잊혀가는 요즘에도 상관 묘동마을에서는 여전히 백중을 챙긴다. 사람 수는 예전만 못해도, 이 날만큼은 함께 모여 밥상 앞에 둘러앉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묘동마을 회관에도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박미숙 씨와 강수재, 이종복 어르신이 먼저 회관 문을 열고 청소를 마친 뒤 음식을 준비했다. 수재 어르신은 집에서 인삼 한 팩을 챙겨오며 “닭죽에 넣으면 맛이 깊어지고 힘이 난다”며 웃었고 종북 어르신은 술을 걸어놓으며 “오늘은 푸짐하게 끓여야지”라며 거들었다.

점심이 가까워질수록 회관은 북적였다. 술 안에서는 쌀과 녹두를 넣은 닭죽이 보글보글 끓고 한쪽에서는 삶은 닭으로 무침을 만들고 반찬이 차려졌다. 주민들이 그릇과 젓가락을 챙겨 들어오는 사이 회관 스피커에서는 김대권 이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 같이 식사하러 오세요.” 주민들은 방송을 들고 서둘러 회관으로 모여들며 도란도란 안부를 나눴다.

노인회장 허인자(77) 어르신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도 점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으니 참 좋다. 다 같이 밥 먹고 안부 나누는 게 제일 크지”라고 말했다. 최효숙(79) 어르신도 “옛날엔 마을에 아이들 뛰어놀고 어른들은 마당에서 술잔 돌리고 그랬어.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렇게라도 모이니 그때 생각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관은 닭죽 한 그릇에 묘동마을의 백중은 또 한 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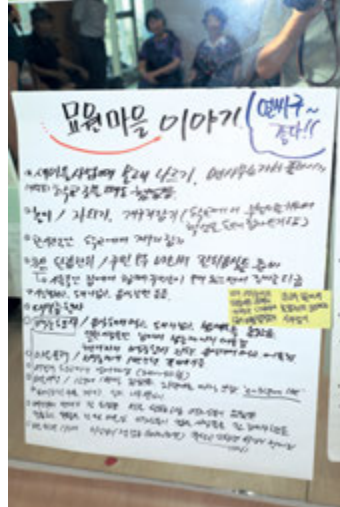
**신나는 노래자랑 한마당**

든든히 점심을 먹은 주민들은 방을 정돈하고 노래자랑 무대를 준비했다. 김대권 이장이 정성껏 마련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한쪽에 차곡차곡 쌓였고, 방 주변엔 노래를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도 넉넉히 배치되었다. 노래장사의 신나는 리드에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분위기가 한층 살아났다.

특히 이종복 어르신이 ‘남행열차’를 열정적으로 부를 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과 함께 신나는 한때를 보냈다. 자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박수와 환호로 분위기를 돋웠고, 김대권 이장이 준비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상품은 참가자들에게 행운과 기쁨을 더했다.

최효숙 어르신은 “노래를 직접 부르진 못하지만 다른 분들 노래를 들으며 박수 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며, “이런 마을 사업 덕분에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기쁘다”고 말했다. 김중철(77) 어르신은 “최근 마을 행사 횟수가 줄어 아쉬웠는데 이번 리빙랩 사업 덕분에 활기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희망했다.

이번 노래자랑 행사는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활동으로서, 다양한 세대가 화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주민들이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웃음꽃을 피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



마을자치 리빙랩 사업 활동과 강대권 이장이 준비한 노래자랑 상품  
마을 입구에 세워진 묘동마을 비석  
고추밭에서 일하는 묘동마을 삼총사  
백중날을 맞아 함께 점심을 먹는 마을 사람들

묘동마을 끝, 상관저수지 옆에 사는 강수재 어르신

## “자전거 타고 매일 마을회관 오가요”


상관저수지 물비린내와 풀내음이 스며든 구불구불한 길, 강수재 어르신의 자전거는 매일 마을회관과 집을 오간다. 밀린 집안일을 하러 회관 문을 나서는 수재 어르신의 뒤를 이웃들이 따라 나왔다. “저녁 반찬 만들어 먹을 가지 얻으러 왔다”고 웃는 이웃을 위해 그가 두 손 가득 가지를 땀다. 너무 많다며 손사래 치는 이웃에게 크고 실한 것만 골라 봉지에 담아주며 “가지가 많이 열렸으니까 넉넉히 가져가시라”고 미소 지었다.

수재 어르신의 집 마당에는 계절 따라 취나물, 들깨와 참깨, 옥수수, 인디언감자, 열무, 가지, 생강, 배추까지 없는 게 없다. “남 주고 싶어서, 또 누굴 찾아갈 때 평소 받았던 정을 보답하고 싶어서”라며, 욕심 아닌 나눔의 마음으로 손수 작물을 키운다. 마을회관에서 모여 먹는 밥상에도 수재 어르신의 텃밭 채소가 자주 올라온다. 가끔 고기나 생선같이 좋은 식재료가 생기면 마을회관 냉창고에 넣어 놓기도 한다. 이날도 미리 손질해 둔 병치와 조기로 매콤한 생선찜을 만들어 함께 점심을 들었다.

김제에서 시집와 처음 묘동마을에 왔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선하다. 평야에서만 살다가 첩첩산중에 오니 마치 백두산인 줄 알았다던 그 첫인상, 그리고 1978년에야 전기가 들어오던 시절의 불편함이 떠오른다. 힘들었던 새댁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것은 이웃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결혼식 있으면 천막 치고 마당에서 전을 부쳤어요. 초상이 나면 온 동네가 모여 상복을 짓기도 했죠. 젊은 사람들은 음식 나르며 일손 돕고, 어르신들은 늘 다독여주시며 함께하셨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던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 올해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난 큰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 않는다. 마을잔치나 행사마다 가장 먼저 나와 술선수범했던 그분의 모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보기였다. “그분이 계실 때는 늘 마음이 든든했어요. 젊은이들이 실수하더라도 큰소리 내지 않고 품어주시는 인품이라 본받고 싶은 분이셨죠.”

마을회관 마당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잔칫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풍경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수재 어르신은 여전히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른 이웃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저는 바라는 게 딱히 없어요. 아무 바람이랄 게 있나요. 그저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마을이 늘 지금처럼 다정했다면 좋겠습니다.” 



배추밭에서 모종 텅키기 작업을 하는 수재 어르신과 매일 타고 다니는 어르신의 자전거  
배추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꺼진 흙을 다시 채우고 있다.  
10년 전 찍은 리마인드웨딩사진  
고추 따는 수재 어르신

마을 발전을 꿈꾸는 김대권 이장

## “첫 마을 이장 주민과 함께 여는 새 출발”



상과면 의암리의 묘원은 묘동, 원의암, 대관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묘원’이라는 이름은 묘동과 원의암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명칭이다. 각 마을마다 지형과 특색이 다르며 김대권 이장은 이 세 마을을 한 명의 이장으로 총괄하며 마을 살림을 이끌고 있다.

### Q. 현재 마을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

A. 묘동마을은 총 35가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심하지만 다른 마을보다 주민 간 화합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다. 이번에 처음으로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의 마을자치 리빙랩 사업에 참여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 Q. 묘동마을 자랑을 해보려면 어떤 게 있나

A. 초복, 중복, 보름, 백중과 같은 명절에는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회관에 모여 간단히 밥을 나누며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마련되는데, 이런 소소한 모임이 바로 마을 화합의 중심이다. 계절마다 돌아오는 명절과 보름 모임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도움과 관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Q.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을 발전 계획이 있는지

A.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상관저수지를 끼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마을 개발이 쉽지 않았다. 2010년 이후 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개발사업은 없었다. 올해는 행정의 지원으로 저수지를 지나는 마을 포장도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처음 맡는 큰 사업이라 정신이 없지만 잘 마무리해서 이번 마을자치 프로그램처럼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싶다.

### Q. 마지막으로 이장으로서 바람이나 소망이 있는지 궁금하다

A. 3개 마을을 맡고 있다 보니 한 마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독단적이기보다 주민과 함께 협력하며 화합과 참여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끌고 싶다. 작은 마을이라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 



마을 안내 방송 중인 김대권 이장

## 거의 매일 함께, 밥+수다+놀이하는 문화공간

묘동카페지기 박나연 씨

오전 내내 내리던 비가 잠잠해진 오후 2시, 조용했던 마을회관에 하나둘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자리를 마련한 이는 묘동카페지기 박나연(58) 씨였다.

나연 씨는 아침부터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찾아가 “오늘은 무슨 활동을 해요, 같이 오세요.”라며 권유한다. 혼자 집에서 봉숭아 물을 들여보니 색이 곱게 나와, 주민들과도 함께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직접 따온 진분홍빛 봉숭아 꽃잎과 백분, 그리고 함께 나눌 시원한 오미자차와 노란 참외까지 손수 준비해왔다.


마을회관 한쪽에는 출석부도 놓였다. 이름하여 ‘묘동카페’. 나연 씨는 “거의 매일 회관에 모여 밥 먹고 수다 떨며 노는 모습이 마치 카페 같아서 붙인 이름이에요. 출석부를 모아 연말에는 작은 파티도 할 생각입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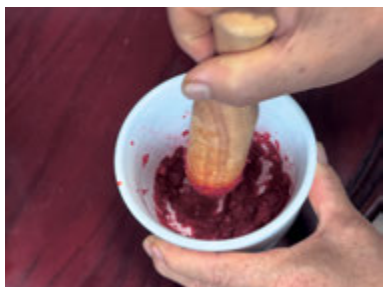
주민들은 등글게 책상에 둘러앉아 봉숭아 꽃잎 반죽을 손톱 위에 얹었다. 손재주 좋은 나연 씨와 이웃 미숙 씨가 정성껏 도와주니, 기다리는 동안 “옛날에는 이렇게 봉숭아 물을 들였지”라든가 “누구 손톱이 제일 고운가” 하는 이야기꽃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느새 회관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3년 전 전주에서 묘동마을로 귀촌한 나연 씨는 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가로 일한다. 그는 시니어 기관의 체험 강사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지난 6월부터 ‘묘동카페’ 모임을 열고 있다. 오르골 만들기와 보드게임 등 매번 다채로운 체험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묘동카페 단골 허인자 어르신은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보겠다. 집과 가까운 회관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묘동카페를 위해 최근에는 나연 씨의 지인도 힘을 보탤다. 목공예 재능 있는 지인이 원목식탁을 만들어주기로 했고, 필요한 재료비는 나연 씨가 지원했다. 뜻밖의 훈훈한 소식에 모인 이들은 손뼉을 치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때그때 주민들과 나누고 싶은 활동을 떠올려 준비해요. 마을 언니들이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게 고마워서 작은 보답처럼 시작한 활동인데 오히려 제게 큰 활력이 되고 있어요.” 나연 씨는 그렇게 웃으며 활동의 의미를 풀어냈다.

묘동카페라는 이름처럼, 이제 마을회관은 누군가의 집이자 쉼터, 또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 나연 씨의 손길 덕분에 한결 따뜻해진 회관으로 모여들며 웃음을 이어가고 있다. 



묘동마을로 귀향한 이종철 어르신

##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고향에서 40년

흐린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마을회관 옆 골목길에서 도랑의 돌을 치우고 있는 이종철(77)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돌이 떠밀려와 물길이 막히면 도랑이 넘친다”며 늘 손으로 치워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맨손으로 묵묵히 도랑을 정비하는 모습에서 마을을 지키는 오랜 지혜가 묻어났다.

정비를 끝낸 어르신을 따라간 집은 단정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사 온 기념품이 하나둘 쌓여 커다란 장식장을 가득 채웠고, 자식과 손주의 사진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었다. 환한 얼굴로 객을 맞이한 이순임(70) 어르신은 묘동마을 옆 동네인 마치리 출신으로, 용인에서 종철 어르신과 만나 결혼한 후 1979년도에 남편의 고향으로 함께 들어왔다.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마을 입구에서 우리 집이 있는 안쪽까지 차가 들어올 길이 없었어요. 포장도로도 훨씬 뒤에야 생겼고, 도랑도 새로 만들어졌지요. 그래도 조용히 지내기 좋은 마을이었어요.”

종철 어르신은 달라진 세월의 풍경과 함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변치 않는 고향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윗동네에 있던 분교를 4학년까지 다니고 나면 멀리 떨어진 신리까지 상관 초등학교로 걸어 다니며 졸업했다”며 “등교 때와 달리 느긋한 걸



음으로 하교하고 나면 가족들의 일손을 돕고, 친구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놀았던 추억이 떠오른다”고 웃었다.

한때 번창했던 꽃나무처럼 장성한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전주에서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부부는 지금까지 고향에서 보낸 40년처럼 앞으로의 일상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 먹고 나누는 게 좋은 이종복 어르신

## “좋은 것 먹으려고 내가 직접 짓죠”




9월 9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던 날. 전날 미리 따두었던 고추를 말리고 씻고 건조할 준비를 하던 이종복(68) 어르신의 집에 객들이 찾아왔다. 혼자 하려던 일을 도와주러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나서니 일이 훨씬 빨라졌다. 어르신은 연신 “같이 해주니 덕을 본다”며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의 고추밭은 무려 500평.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가 고추를 따고 날씨가 시원한 날에는 오후에도 일을 이

어간다. 집에 돌아오면 꼭지를 떼고 씻어 말리는 일과가 이어진다. 올해는 다섯 번째 수확을 맞았다.

“고추는 5월에 심어 7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요. 익고 열고 또 따고…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는 거죠. 사실 사 먹는 게 더 간단하긴 해요. 하지만 좋은 거 먹으려고 내가 직접 짓는 거예요.”

밭에는 고추뿐 아니라 호박과 들깨, 마늘, 깨 등 다양한 작물이 함께 자란다. 농약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흙을 일구며 자라는 작물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한다. 돈 되는 농사는 아니지만 김장철에 쓸 양념거리와 가족 먹거리를 직접 해결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수확한 고추는 자식들에게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며 작은 기쁨을 이어간다. 나눔은 어르신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함께 먹고, 나누는 그게 참 좋아요.”

슬하에 1남 1녀를 둔 어르신은 사촌언니의 중매로 남편을 묘동마을에서 만났다. 결혼 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잠시 시내에서 생활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다시 묘동마을로 돌아왔다. 두 자녀 모두 서울에서 살지만 생일이나 명절이면 자주 내려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밭일도 돕는다. 자식이 많지 않아 늘 북적거리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족 간의 정이 깊고 돈독하다.

“옛그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생일이라 아들이 내려왔어요. 딸도 내려오면 꼭 고추 밭일을 함께 도와주고요. 요즘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항상 올 때마다 반갑고 좋고 그래요.” 

### 농촌돌봄농장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 치유와 돌봄이 가치있게 피어나는 허브공동체

싱그러운 허브 내음이 가득한 봉동의 한 농장, 그라스팜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용진노인복지회관과 완주 지역 생활 지원사들이 연계하여 모집한 봉동읍과 용진읍 지역의 어르신들이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어르신들을 그라스팜의 이현희 이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사랑스러운 이복순', '당당한 임정자'와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 더욱 정겹다.

가벼운 몸풀기 체조와 흥겨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한 어르신들은 곧 텃밭으로 향했다. 평생 농사로 다져진 실력으로 상추와 채소를 척척 수확하고, "상추가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솟아 쥐야 한다"며 이웃 참여자의 텃밭을 살뜰히 돌봐주는 모습에서 훈훈한 정이 느껴졌다. 잠시 후, 자리를 옮겨 꽃다발에 사용할 라벤더를 채취했다. 꽃잎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레 줄기를 자르고,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내음을 만끽하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만연하다.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던 임정자 어르신은 "라벤더오일 향만 맡아봤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만져보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다"며 "라벤더 수확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햇살이 뜨거운 줄도 모르겠다"고 웃었다.

그라스팜의 허브 농장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배움에 설레는 어린아이가 된다. 익숙한 땅에서 펼쳐지는 작은 발견과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물한 것이다. 평생의 경험과 새로운 배움이 만나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 >> 치유와 돌봄이 흐르는 향기로운 허브농장, 그라스팜

그라스팜은 15년 이상 경력의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2019년 완주에 정착해 운영하는 친환경 허브농장이다. 20여 종이 넘는 허브를 직접 재배하며, 1차 생산물은 온라인, 로컬푸드, 도매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인증 농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1년

부터 시작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라스팜의 진심을 보여준다.

#### Q\_ 농촌돌봄농장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농촌돌봄농장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허브 재배 기술과 다양한 농업 분야를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또한, 허브 체험 농장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죠. 그러던 중 2021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왔기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년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 올해 신규 농촌돌봄농장으로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왼쪽부터  
이현희 이사, 정시주 대표 부부



####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 대표자 정시주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봉동읍 삼봉로 881-33



**Q\_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자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 농장 일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되었다’고 오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허브농장의 특성을 살려, 익숙하지 않은 농업 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상품화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공통의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_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현재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용진노인복지회관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저를 경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싫어요”, “안 해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장에 오실 때마다 저를 반갑게 대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_ 사회적 농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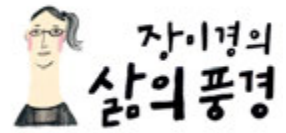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라스팜이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모두에게 힘이 되는 작은 마을 같은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활력을 줄 수 있는 향기로운 허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치유와 돌봄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그라스팜을 찾은 용진과 봉동지역 어르신들이 농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 포도송이 처럼 알알이 맺힌 관계들의 힘

완주친환경농업인협회가 운영하는 친환경자재 판매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 고산면 상리 김지연 이야기

김지연 씨가 일하는 사무실은 내가 일하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오랜만에 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지연 씨는 완주친환경농업인협회가 운영하는 친환경자재 판매점에서 실장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편안한 사랑방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지연 씨가 뽐어내는 기운 탓일 테다. 사무실을 둘러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사물함 손잡이에 걸려 있는 형형색색의 조끼들. 겹겹이 하나씩 펼쳐 보는데 이것은 흡사 7개의 드래곤 볼을 모두 모으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의 모험담이 궁금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지역사회봉사단, 여성예비군, 대한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연탄나눔을 비롯한 수많은 봉사활동의 결과가 알록달록한 조끼 위에 오바로크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활동까지 김지연 씨가 관계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은 적어놓지 않으면 외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 활동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이유와 동력이 궁금했다.

“제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부대장 면접 보러 갔는데, 시골이 작으니까 몇 개 활동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이라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겹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봉사도 봉사지만,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활기를 찾았어요. 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봉사 일을 시작한 시기에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였어요. 내 아픈 걸 잊기 위해 시작했는데 나보다 어려우신 분들도 만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봉사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이더라고요. 내 건강도 찾고 삶의 활기도 찾고,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를 떠나서 이게 나 김지연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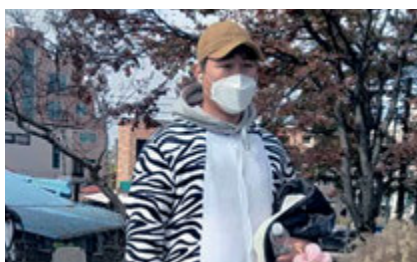
지연 씨의 수많은 봉사활동의 결과인 알록달록한 조끼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지역사랑봉사단, 여성예비군, 대한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등 지연 씨의 지역사회 활동의 상징과도 같다.

1973년생 김지연 씨는 고산 토박이다. 고산휴양림 근처 양막(현재 오산리 동봉마을)에서 1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났고 부모님도 한 동네 결혼을 해서 외가도 친가도 모두 한 마을이다. 어린 시절에는 명절 때 귀경길을 떠나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봉동읍 출신의 남자를 만났다. 완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었다. 짧은 전주 신혼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인 고산으로 돌아와 지금껏 살고 있다.

“저는 음력 5월에 외갓집 사랑방에서 태어났어요. 늘 일가친척들로 북적였고 사랑받고 잘 자랐어요. 아들, 딸 차별 없이 잘 컸죠. 학교도 고산초, 고산중, 고산고를 나와서 말하자면 <쓰리고>죠. 솔직히 어렸을 때는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주에 직장생활 하면서 버스 타고 나갈 때 내가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다시는 안 들어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도시로 나가는 걸 동경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삶을 새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안 들어와야지 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시 또 들어오게 됐네요.”

그녀는 거의 평생을 고향인 고산에서 살아왔지만,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고산에 이렇게 많은 동네가 있었는지, 골짜기는 왜 이리 많은지, 또 이렇게 많은 저수지들이 있었는지를 새삼 알게 됐다고 한다. 자율방범대의 순찰은 밤에 이뤄지며, 특히 어둡고 후미진 곳을 살핀다. 예전에는 밝은 곳만 바라보며 몰랐던 사각지대를 일부러 찾아다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살핀다. 철없이 뛰놀던 동네를 이제는 어른이 되어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느끼는 소회가 궁금했다.

“저는 추위가 싫어서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누워야지 할 시간에 이제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참 재미있어



119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훈련 중인 지연 씨. 지연 씨와 함께 봉사활동 중인 셋째아들(가운데)과 봉사단 홍보 활동 중 인형탈을 쓴 둘째아들. 김지연 사진제공

요. 대원들이 다 또래 친구들이고 친한 언니 오빠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컸다는 걸 느끼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작아 하듯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커 보이던 동네가 이렇게 작았구나 하고 새삼 느껴요. 어렸을 때 보던 동네 어르신들도 기억에는 젊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나이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큰 어른들 같은 존재가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거죠. 그

러니까 당연히 마을을 돌보고 마을 대소사도 다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남편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활동적인 지연 씨 부부에게서 태어난 삼형제 이야기가 문득 궁금했다. 첫째는 96년생, 둘째는 97년생 그리고 막내 혁규는 2003년생이다. 통닭을 사주겠다는 엄마의 유혹에 넘어와 둘째와 셋째는 봉사활동에 자주 동행했고, 특히 막내 혁규는 그때의 기억을 대학입학 자소서에도 썼다고 한다. 지역의 농업관련 단체의 사무실에서 10년째 일하면서 그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해나가면서도 그녀는 아직도 배우고 싶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만학도거든요. 아들들이 엄마 닮았나 봐요. 우리 집에 뒤늦게 공부 바람이 불어서 대학생이 많아요. 저는 지금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3학년이고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 그래도 3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그게 혼자 도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봉사 단체에서 거의 열 몇 명이 한꺼번에 대학 입학해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김지연 씨는 자신의 봉사활동이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저 고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들이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영글어, 결국은 동네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사람들의 삶과 마음도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더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동네 구석구석을 다녔을 김지연 씨와 봉사활동 동료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조금은 선선해진 초가을에는 그들의 발걸음이 여름보다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 100개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채용의 장



4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완주군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업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_완주군

9월 4일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가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우수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채용설명회, 채용관, 취업특강&토크콘서트, 입사상담, 체험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2,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뜨거운 취업 열기가 더해졌다. 특히, 40개 기업이 참여한 채용관 현장 면접은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활기를 더했다. 이날 1차 면접을 통과한 150여 명의 구직자는 향후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취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입사상담관에는 (주)정석케미칼, BTE, 일진하이솔루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새만금개발공사, 육군본부, 완주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심층 상담과 전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취업 전략을 제공,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일자리박람회 체험부스에서 활동을 체험하고 상담을 받는 참여자들

사진제공\_완주군





간접 참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들의 모습



완주문화재단 꿈의 극단 '완주'

# 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여름 캠프!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꿈의 극단 '완주'는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연극 여행을 떠났습니다. 8월 8일, 1박 2일간 경천애인마을에서 진행한 여름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연극 놀이 속에서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한 해의 성장을 담은 창작공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여름 캠프! 그럼 단원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글=꿈의 극단 코디네이터 이정란



## 1일차 “세 달 내내 이 날만 기다렸어요!”

단원들은 친구들과 함께할 캠프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먼저 시원한 물놀이를 더위를 날려 보내고, 트램펄린에서 폴짝폴짝 뛰어놀며, 마을 곳곳을 누비는 스릴 만점 강릉열차 투어까지 즐겼습니다. 한껏 신나게 뛰어놀면서도 귀여운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아 챙겨주는 언니, 형아들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 <연극 놀이> 우리는 놀면서 연극을 배워요!

다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몸을 풀었어요. 어떤 친구는 걸릴까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고, 또 다른 친구는 배우 이정재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이어서 낱말을 보고 장면을 떠올려 그림으로 퀴즈를 내는 시간! 누군가는 재우복음을 놀라울 만큼 디테일하게 그려냈고, 또 다른 친구는 속담을 풍경화처럼 구성해 감탄을 자아냈어요. 아이들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반짝했던 시간이었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금세 가까워졌고, 한 문장씩 이어가는 이야기 릴레이로 서로의 생각에 공감의 다리를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색종이, 막대, 테이프 등 다양한 재료로 자신을 캐릭터화하고 직접 의상을 만들어 작은 패션쇼를 열며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았어요.

### <몸의 움직임> 안무가 선생님과의 첫 만남!

안무가 김빛난 선생님의 수업은 아이들이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깨우고, 음악에 맞춰 '멈춤-움직임'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물입을 높였어요. 막대의 양 끝에 손가락을 맞대고 떨어뜨리지 않기 놀이를 하며 몸짓으로 교감하고 협동심을 키웠고, 서로 눈빛을 주고 받으며, 호흡을 맞추는 연습에 소풍을 더해 재미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자라났고, 밤 하늘의 별 처럼 반짝이는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 2일차 “우리는 지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 <자연이 그린 그림>

이튿날 아침, 아이들은 연출가 추미경 선생님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길 위에서 만난 나뭇잎, 돌맹이, 꽃잎은 곧 아이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각자 모은 자연물을 오브제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작은 설치작업을 완성했죠.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을 모아 미니 전시회를 열며 서로의 상상을 나눴습니다.

### 저학년 '학교 가는 길'

평범한 아침 등갓길에 상상력을 더했어요. 큰 천 위에 길을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으며 상황극을 펼쳤죠.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고 투덜대던 얼굴도 학교에 도착해 친구들을 만나면 금세 환해졌답니다. 사랑스러운 일상의 장면들은 미소가 절로 머금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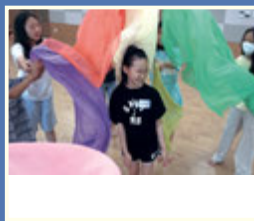
### 고학년 '꿈'

아이들의 꿈 속 장면을 현실로 꺼내왔습니다. 종이기가 되었다가 인형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자로 변신하며 상상력 가득한 서사를 펼쳐냈습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게 꿈이었다!"는 반전으로 유쾌하게 마무리! 객석에서는 웃음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 <신박한 상장 수여식과 뜨거웠던 캠프의 여운>

'춤이 환상', '상상 그 이상', '기발한 발상', '연구 대상' 등 세상에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맞춤형 상장을 수여했어요. 서로의 재능과 순간의 반짝임을 발견하고, 박수로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고,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존중하며 장면, 장면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캠프의 작은 결과발표회를 통해 무대 위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꿈의 극단 '완주' 정기공연

2025. 11. 22. 토 15:00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 문의 :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공연1

무대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신호등과 횡단보도,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등갓길 이야기 러닝타임 10분 이내

공연2

현실을 떠나 다른 차원(이세계)에 도착한 아이들! 솔직한 욕망과 꿈을 마주하고 혼란을 헤쳐가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러닝타임 20분 이내

단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계정을 통해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해주세요!

Instagram dreamtheater\_wanju\_official



완주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in 완주

# 움직임 속에 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꿈의 무용단 in 완주**

6월부터 8월, 가장 뜨거운 계절에도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방학을 멈춤 대신 성장으로 채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모여 여름의 공기를 몸으로 느끼고, 내 몸의 크기와 무게를 탐색하며, 바람을 상상하고, 일상의 순간을 나만의 동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글=꿈의 무용단 코디네이터 최가람



“이번엔 파란 테이프야! 동작을 크게 표현해봐!”  
색색의 테이프를 교실 바닥에 길게, 짧게 붙여 마치 무지개 계단을 만들었어요. “빨간 테이프는 짧으니까 몸을 작~게!”, “파란 테이프는 길게 팔다리를 쪽쪽!” 테이프 길이에 따라 큰 동작, 작은 동작을 음악에 맞춰봤어요. 크기와 길이, 속도를 바꾸는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협력과 몰입이 깊어지고, 몸과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쌩~쌩~” “후~후~” “술술~”  
바람소리에 맞춰 천을 들고 각자의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센 바람은 힘차게, 산들바람은 살랑살랑. 이어 ‘사랑의 바람’은 원을 이루어 앉아, 한 명씩 가운데 친구의 좋은 점을 한 가지씩 말하고 “사랑해, 친구야!”와 함께 함께 천으로 바람을 보내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번엔 별 모양으로 만들어볼까?”  
고무줄을 잡아 원, 삼각형, 네모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좁게, 때로는 길게. 다른 친구들은 그 공간을 기어가고, 뛰어넘고, 몸을 비틀어 통과했어요. 고무줄 놀이도 각자만의 동작으로, 마지막엔 한 명씩 세 지점을 차례로 이동해 하나로 이어지는 놀이도 즐겼습니다.



6/14 내 몸의 크기는?



7/5 바람아 불어라~



7/19 공간 나누기와 고무줄 놀이

8/9 “우리 놀자!”

운동장에서의 추억을 꺼내 몸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난치기, 동대문놀이, 그대로 멈춰라, 꼬리잡기까지 익숙한 놀이가 새로운 움직임이 되었어요. 서로의 기억을 나누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8/2 학교 가는 길

“친구야! 반가워!”  
단원들은 등굣길의 순간을 몸짓으로 풀어냈습니다. 졸린 몸을 깨우는 기지개, 살짝 다가 친구를 놀라게 하기, 가위바위보에 몰두하다 뛰어 어던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까지. 음악에 맞춰 함께 움직이자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춤이 되었습니다.

##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

2025. 11. 29. 토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 문의 :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완주군의 앵곡마을은 전래동화 <공쥐 팔쥐>의 배경입니다.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이 이야기를 단원들의 일상과 마음으로 다시 비추어, 서른 명의 공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인내, 끈기, 긍정으로 건너는 여정을 춤으로 엮었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서른두 명의 공쥐가 전하는 마음을 함께해 주세요.



[완주예술방학-夏] 레지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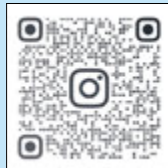
# 완주에서 보낸 예술방학

## 완주문화재단 완주예술공간에 입주한 4팀

완주문화재단은 올여름 [완주예술방학-夏] 레지던시를 통해 완주예술공간에 입주한 4팀(명)의 참여작가 김경진, 박세연, 아롱다롱, 위주리 씨를 소개합니다. 7·8월 동안 작가들은 마을을 걷고 주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일상에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곧 창작이 되었고, 완주라는 공간은 예술과 지역을 잇는 특별한 장❷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지면에서는 완주에서의 여름방학을 기록해 준 4(팀)명의 작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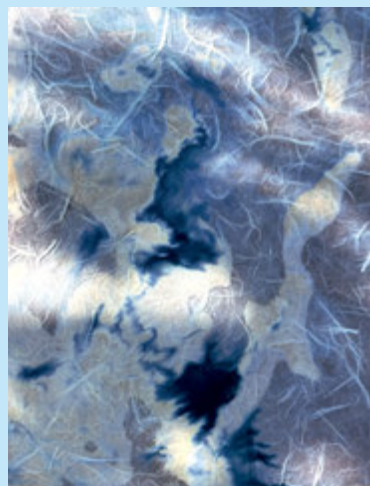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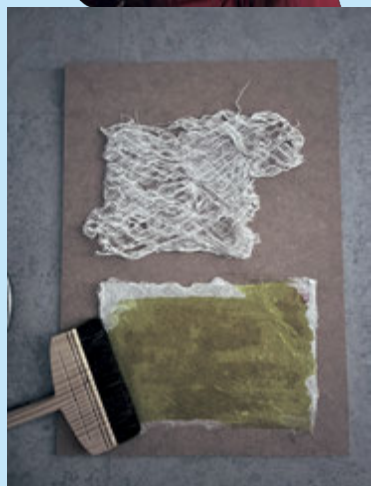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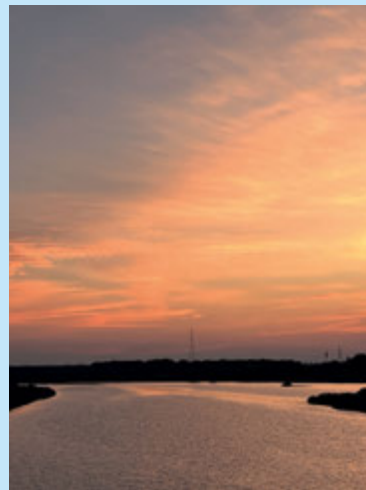
김경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경진입니다. 완주예술방학 레지던시에 참여해 두 달간 머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곳에 대해 잘 몰랐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차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늦게 자고 일어났는데, 완주에서는 새와 곤충 소리에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도 달라져 일찍 잠들곤 합니다. 작업에는 주로 만경강의 물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바람에 실려 온 깨끗한 향기를 맡으며, 이곳의 모든 작물이 강의 물로 자란다는 생각이 들어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써보니 물 또한 참 맑고 좋았습니다.



박세연

안경을 벗고 생활할 때는 흐릿한 시야 덕분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고, 선명한 초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군중 속을 멍하니 흘러가듯 지나는 것이 자유롭게 다가왔다. 너무 많은 시각 정보로 피곤해지지 않고, 흐릿함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듯한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완주에서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 안경을 쓰게 되었고, 꽃잎과 나비, 잠자리 같은 작은 자연의 움직임부터 해 질 무렵 하늘빛의 변화까지 또렷하게 바라보며 서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풍경을 만끽했다. 그래서 완주의 여름 동안은 안경을 쓰고 지낼 예정이다.





아롱다롱



ARONGDARONG(아롱다롱)팀은 예술방학 레지던시 기간 동안 완주 곳곳을 여행하며 사진 필름을 다중노출하여 만든 <기억 속의 이미지>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다중노출은 흐릿하고 겹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선명한 사진보다 우리의 실제 기억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봉동생강골시장에서 시작해 오성한옥마을, 대승한지마을, 전통술 시음, 사격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교류했고, 그 경험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 같은 추억으로 쌓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진, 인터뷰, 이동 기록을 모아 <예술 방학 일기> 결과 기록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억 속의 이미지> 프로젝트는 쌍둥이 작가의 경험에서 출발해, 같은 여행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다르게 남거나 섞이고 흐릿해진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베네치아 여행부터 이어진 이 작업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입주기간

7.21.~9.28.

레지던시  
결과전시회

9.16.-9.28.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2층 전시실

위주리

완주는 어떤 곳일까.

유난히 여러 도시에 걸쳐 일이 많았던 덕분에 스케일이 정말 다른 3곳을 이동하며 완주만의 고유한 감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 완주로 왔던 오늘, 나는 다시 누에아트홀 옆에 자리한 풀밭에 가서 작게 부는 바람에도 한들거리는 풀잎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들을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늘 생동하는 미세하고도 온기 어린 움직임. 내게 완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대도시의 큰 흐름과 자본의 힘에 휩쓸리지 않을 정성스럽고 고유한 생들이 이곳에 그들만의 생태계를 꾸리고 있다. 욕심은 버리고 조급한 마음도 덜어내고 뺏에 스치는 바람의 모양을 더듬으며 나를 둘러싼 움직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온몸으로 느낄 때에 비로소 감각한다. 억지로 버티거나 부러 만들지 않고 별과 꿀짜기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조금씩 나를 내어주고 있다.

어느 날, 위봉폭포를 찾았다. 폭포에 다다를수록, 숨이 차오르다가 이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다. 폭포는 거창하거나 위엄있지 않았다. 마치 실오라기처럼, 바위의 작은 요철에도 수가닥으로 갈라지며 표면을 감싸안듯 흘러내렸다. 아, 완주구나. 암벽 위로 돌아난 풀들도 마치 폭포의 옷을 입은 듯 아래로 늘어지며 유연하게 흠어져 가만가만 흔들렸다. 공간은 사람을 닮고, 나무는 지역의 풍토를 닮는다더니, 이곳의 풀들도 폭포를 꼭 빼닮았다.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며 뒤섞이는 삶이 그 어디 멀리까 아니라 이곳 완주에 있었다.



문의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 완주 여기로 모이자!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가을의 문턱 9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꽃꽂이 기본기를 배우고, 감각적인 테이블 센터피스를 완성해보는 경험! 화사한 계절 꽃과 싱그러운 그린 소재로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는 시간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0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10,000원

####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9월 상영작은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논나', '서브스텐스' 이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 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7일, 24일 (매주 수) 오후 2시

#### 여름 저속노화밥상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초가를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저속 노화밥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채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8일, 25일 (매주 목) 오후 6시  
**모집인원:** 4명 \*선착순  
**참가비:** 5,000원

####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8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 글쓰기 모임

마음 속 생각을 글로 꺼내고 서로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이어가기 힘든 글쓰기를 글쓰기 모임을 통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 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0일 (토) 오후 7시

#### 영화 읽기 모임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장면과 의미를 영화 읽기 모임을 통해 함께 발견하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7일 (토) 오후 3시

#### 일본어 회화 모임

일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다. 나가무라 미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어 회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9월 23일, 30일 (화) 오후 7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메시지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 "풍성한 가을의 시작, 여유롭고 행복한 9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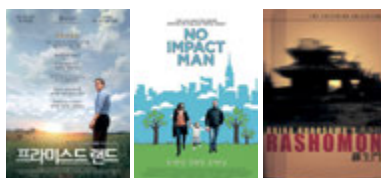
시골극장 콩씨네 9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저녁극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상영은 기후위기 완주행동과 함께한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9월 20일 (토) 오후 2시	프리미스드 랜드	드라마	12세 관람가
9월 27일 (토) 오후 2시	노 임팩트 맨	다큐, 드라마	전체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9월 30일 (화) 오후 7시	라쇼	드라마	15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2025 찾아가는 문화마실 '완주에 퍼지는 문화한상'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적 공백을 회복하고 문화 소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작은 공연 '2025 찾아가는 문화마실'을 진행한다. 문화 향유가 어려운 곳곳까지 찾아가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나누며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잔치를 만들어간다. 이번 동상에 퍼지는 문화한상은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동상면민운동장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세 명의 판소리꾼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 민요씨스타즈-춘삼월이 남도 민요와 신민요를 중심으로 전통을 새롭게 재창조하며 뿌리 깊은 민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노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 오성한옥마을 제7회 오픈가든축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에서 오픈가든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축제는 오성한옥마을의 한옥경관과 중남산, 위봉산으로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경관에서 펼쳐지는 축제다.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오성제의 잔디마당을 무대로 풍류학교의 국악 축하공연과 마을주민들의 동아리 공연,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참가자들이 오성제 일원의 생태숲 경관을 거닐며 취식할 수 있도록 피크닉 바구니 형태의 축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다도, 화분만들기, 티코스터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마을 일대 카페는 전시공간으로 내부를 단장해 전시를 펼친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 구름 추적자

#### 날마다 구름 한 점



영국 과학 저술가 개빈 프레터피니가 엮은 이 책은, 365장의 구름 사진을 하루 한 장씩 감상할 수 있도록 모은 책입니다. 구름의 생성 원리와 다양한 대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시와 예술 작품 속 구름을 함께 곁들여 독서의 깊이를 더합니다. 동양 고전에서 구름은 무상함과 이별, 은둔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고, 서양 고전에서는 신의 계시, 인간의 불확실한 감정의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구름을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닌 사유와 성찰의 매개로도 보여줍니다

저자는 “구름 추적”을 통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쉬과 창의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진과 과학적 지식, 문학적 여운이 어우러진 ‘과학적 멧매리기’의 즐거움을 전해줍니다.

개빈 프레터피니 지음 | 김영사 | 371쪽 | 2021 | 2만 2천원

### 돌봄, 사랑, 관계

#### 구름을 키우는 방법



주인공 리지는 어느 맑은 날, 공원에서 신기한 ‘구름 파는 아저씨’를 만나 반려 구름을 입양합니다. 수많은 모양의 구름 중 가장 ‘평범한’ 구름을 선택한 그녀는 ‘다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를 받습니다. 리지는 매일 신선한 물을 주고 산책을 시키며 정성껏 돌보며 다숨이를 키워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숨이는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무럭무럭 커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지고, 리지는 자신이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리지는 ‘사랑에는 돌봄이 있고, 때로는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반려 구름’이라는 환상적인 소재를 통해 만남과 돌봄, 그리고 이별의 섬세한 감정을 담아냅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또는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자립할 때까지 키우되,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것임을 아름답게 전합니다.

테리 펜, 에릭 펜 글그림 | 북극곰 | 56쪽 | 2022 | 1만 8천5백원

#### 베르:봄 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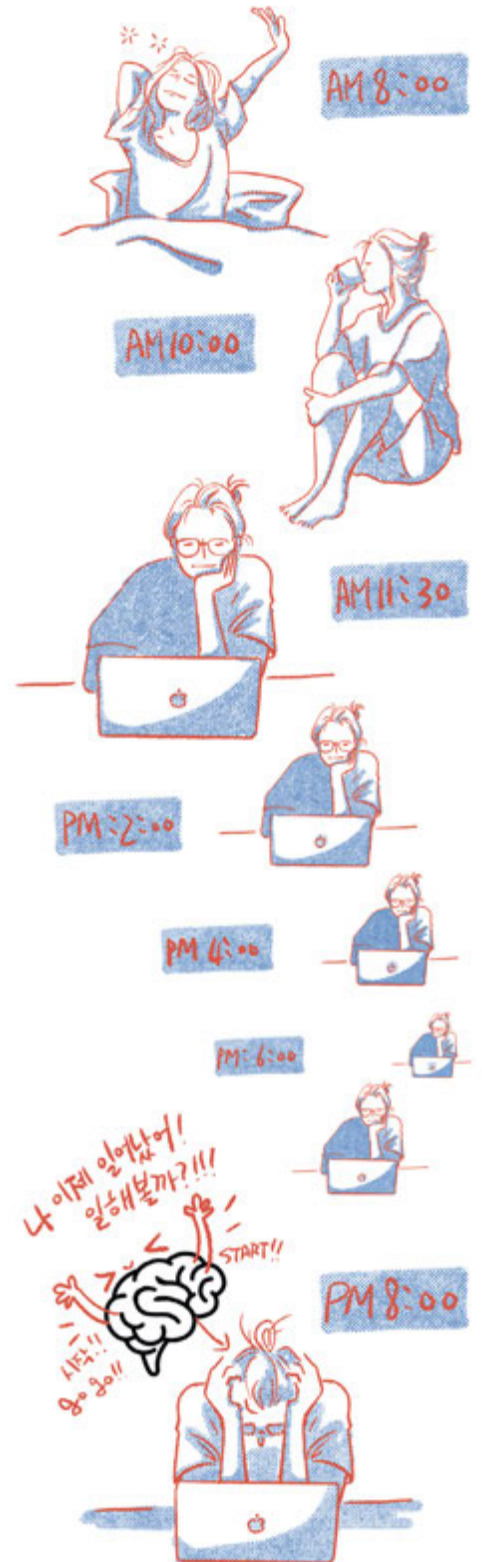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 설레

#75 나와 다른 길을 가는 네게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흔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 피아노로 달래보는 삶의 애환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1) 빌리 조엘의 [피아노 맨]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노래를 해주게 피아노 맨/ 오늘밤 우리에게 노래를 해주게/ 우리 모두 멜로디에 빠지고 싶네/ 자네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준다네.”

학창시절 설렘과 낙담 사이를 헤맬 때 자주 귀 기울이던 노래입니다. 1974년 서울 입주 아르바이트 집에서 처음 접했던 FM 방송에서 만나 지금까지도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 맨].

이 노래는 단순히 술집의 풍경을 묘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곡은 1970년대 뉴욕의 한 선술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연주하던 젊은 음악가의 체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느 순간 모든 이들의 삶을 압축해 보여주는 보편적 우화로 확장됩니다. 피아노 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한 위안, 맥주잔에 부딪히는 소리와 담배연기 속에 깃든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은 음악이라는 한 매개를 통해 고독과 치유의 양가적 정서를 동시에 전해줍니다.

노래의 배경은 특별할 것도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혹은 잠시 집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작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텐더인 존, 소설가의 꿈을 접어야 하는 폴, 사업을 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공허한 이들, 그리고 사랑을 잃은 외로운 이들까지. 피아노 옆에 둘러앉은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술잔을 나누는 동안 잠시 삶의 무게를 나누는 동료가 됩니다. 술집은 세상살이의 대기실 혹은 휴게실과 같은 공간으로 삶의 옥신각신은 잠시 보류된 채 음악만이 공통의 언어가 됩니다.

빌리 조엘의 목소리와 함께 흐르는 하모니카와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해줍니다. 건반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손님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선율은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들을 건드립니다. 피아노는 연주자 개인의 악기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이의 고백을 대신해 주는 치유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허무를 달래고 또 누군가는 잠시 손 놓았던 희망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 곡이 진정으로 울림을 주는 것은 절망과 희망을 단순하게 대비시키지 않고 그 둘을 한 공간에 겹쳐 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래는 즐겁고 위안을 주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슬픔과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중성을 통해 우리들 인간 존재의 본질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삶은 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성이 바로 음악을 필요로 합니다. 음악은 허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리듬과 선율을 통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작사 작곡 노래 모두 빌리 조엘이 맡았습니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노래는 그의 첫 히트곡이자 대표곡입니다. 1973년에 발매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2013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도서관 국가녹음기록소의 보존 대상으로까지 선정됩니다.

요즘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다양한 풍경들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어떤 날에는 술잔을 기울이며 흐느끼는 낯선 이의 그림자로 다가오고, 또 어떤 날에는 오래된 친구와 웃으며 부르는 추억의 합창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들어도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개인의 고독을 함께 나누는 외로움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피아노의 건반에서 흘러나온 멜로디가 한밤의 술집을 넘어 세상을 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단순히 한 연주자의 자전적 경험을 넘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은 어쩔 수 없이 고단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힐 때, 꿈을 잊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 이 노래 크게 틀어놓고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엘튼 존과 함께 피아노 건반을 부숴버릴 것처럼 두드리며 연주하는 공연상황도 꼭 챙겨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폭염 보내고 가을맞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디자이너 이슬아 씨 득녀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의 디자이너로 일했던 이슬아 씨가 지난 8월 27일, 3.46kg의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이름은 ‘하임’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히브리어로 ‘생명’을 뜻한다. 아이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존재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고 한다.

태몽은 슬아 씨의 친정어머니가 왕비가 되어 개울가에서 목욕하던 중 큰 뱀에게 물리는 꿈이었다고 전해진다.

부부의 어릴 적을 닮아 머리숱이 풍성한 하임이에게 부모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답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소망을 전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용납되는가

김영혜의 **영화산책**  
(8) 노 아더 랜드 No Other Land



바젤 아드라/유발 아브라함 감독 및 주연, 팔레스타인/노르웨이, 2024

한 젊은이가 돌투성이 비탈길 위에 가로로 길게 누워 있다.

젊은이의 등 뒤에는 하늘을 배경으로 불도저 한 대가 위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팔레스타인 다큐멘터리 <노 아더 랜드-다른 땅은 없다>의 포스터 장면이다.

돌투성이 맨땅바닥에 저렇게 누워있다니 무척 불편할 텐데 젊은이는 굶은 돌맹이들도, 등 뒤의 위압적인 불도저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한 가로이 자기 앞의 풀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대체 무슨 일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마을 마사페르 야타가 파괴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팔레스타인 젊은이 바젤 아드라와 이스라엘 젊은이 유발 아브라함(그 외 두 명의 공동감독이 더 있긴 하지만 이들이 주된 등장인물이다)이 공동 연출한 작품이다. 포스터에서 길게 드러누운 젊은이는 바젤이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 훈련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시시때때로 불도저와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한다. 집이고 학교고 할 것없이 무지막지하게 불도저로 밀어붙여 무너뜨리고 나면, 거기에 이스라엘 이주민들이 뒤따라 들어와 정착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한다. 낮에 이스라엘군이 파괴한 집과 학교를 밤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블록을 쌓고 천막을 쳐서 다시 복구해놓는다. 낮에 다시 이스라엘 철거가 시작된다. 밤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복구한다. 이 과정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이스라엘군은 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마을 사람들이 가진 조그만 자가 발전기를 강제로 빼앗아 부숴버린다. 이 과정에서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 정착민이 쏜 총에 맞는다. 치료는커녕, 몸 누일 집조차 없는 그 젊은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채 임시거처인 동굴에 누워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아들의 어머니는 서방 기자에게 하소연한다.

“신이 저 아이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이 고통스런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포스터 속 젊은이의 저 이해할 수 없는 한가로운이 비로소 이해가 가는 듯하다. 그것은 이승의 삶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서 비롯된 자포자기 아닌가 싶다. 끝없이 반복되는 폭력과 맨손뿐인 저항과 세계의 무관심과 강대국들의 방관 속에 버려진 이들의 절망을 돌투성이 언덕길에 누운 팔레스타인 젊은이 바젤 아드라가 온몸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용납되는가.

※ <노 아더 랜드>는 2024년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필두로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고 2025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영화가 전세계의 주목을 끈 후 바젤 아드라는 이스라엘 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한국에서 개봉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마을 소식

## 구이 교동마을, 노래로 하나 된 ‘행복한 종강 잔치’

지난 9월 8일 구이 교동마을회관에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22회차 노래교실 수업을 마친 마을주민 10여 명이 노래교실, 체조교실 강사들을 모시고 잔치를 연 것이다.

직접 가꾼 텃밭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함께 요리하며 주민들은 그동안 쌓은 정을 나누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지원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의 올해 마지막 활동이었다. 비록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교동마을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합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명숙 노인회장을 비롯한 마을 리더들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다른 사업에 지원해 공동체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마을에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극한의 더위가 꺾이는 순간에 가을이

농/촌/별/곡



차 남 호

창밖으로 수긋하게 비가 내린다. 뭉게구름 떠 있는 새파란 하늘빛으로 보면 가을을 재촉하는 비밀이 들림없다. 아직 한낮으로는 따가운 햇볕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새벽녘엔 찬 기운에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끌어 당기게 된다. 기후체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멋쩍게 되어버린 '계절의 변화를 막을 자 누구인가'라는 오래된 감탄사가 저절로 떠오른다. 추석 무렵까지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처서 매직'은 작동하지 않았더라. 누군가 '백로 매직'을 들먹이더라도 그나마 백로 무렵이라도 더위가 한풀 꺾인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그야말로 날씨가 미쳐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극한 폭염에 억눌린 채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던 와중에도 논배미 속 벼포기는 쭉쭉 커서 어느새 이삭을 올리고 시나브로 여물어간다. 지독했던 여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은 식물계에도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삭이 팽 무렵의 극심한 고온은 온대기후에 맞춤형 벼의 생육에 까탈을 부려 소출을 줄어든다. 아울러 초본식물은 물론 고추나 가지처럼 목질을 띠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 논배미에서는 여뀌바늘이 문제가 된다. 잎은 여뀌와 비슷하네 바늘처럼 생긴 열매가 달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 자라면 고춧대처럼 목질을 띠게 되는데 더위가 심해지면서 개채수도 늘어나고 크게 웃자라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뀌바늘이 곳곳에서 무성하게 자라났다. 가을걷이 때 수확기계 작동에 애를 먹이니 미리 없애야 한다. 맨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벼포기를 헤집고 낫으로 밀동을 베어내야 하니 일이 몹시 거추장스럽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별이 뜨거워지기 전 아침나절 두어 시간씩 사나흘 걸려 쏘아 내고 나니 개운하기 그지없다. 이것으로 한해 농사일은 사실상 끝난 셈이다.

엇그제는 여기저기 논배미를 돌며 물꼬를 틀어막아 물길을 끊었다. 수확 작업이 편하도록 논바닥을 말리는 작업이다. 이제 다음 달 초에 예초기로 논둑 풀 처내는 일만 남았다. 차츰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무더위 탓에 거리가 멀어졌거나 손을 놓았던 일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추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갯벌을 없애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숲과 농지를 파괴하고, 습지를 없애 공항을 짓겠다는 이 시대착오적 '빨갯'에 제동이 걸렸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실을 낳기까지 혹독한 무더위를 뚫고 꺾듯이 싸워온 이들에게 그저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다. 그리고 내뿜의 실천이 무엇인지 가늠해 본다. 시시각각 조여드는 인류종말의 절망감 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어 우리네 삶이 지속되는지 모른다. 가을은 그 희망을 닮았다. 저 극한의 더위가 마침내 꺾이는 그 순간에 바로 가을이 서 있다. 더위에 허물어진 심신을 추슬러 새로운 의지를 길어 올리고 움직이게 하는 힘. 오는 가을이 눈물겹도록 반가운 것은 이 때문이다. 비봉 염엄마을

### 완주군의회 소식

##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통합 불가”

유의식 의장·이경애 의원, 캠페인 나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온청년새마을 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 '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 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주의 역사와 정체성은 군민이 지켜온 것”이라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완주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호히 밝히며, 군의회가 끝까지 군민과 함께 완주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 2025 사회적경제 종사자 아카데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하기 힘드시죠?  
종사자(대표, 임직원, 조합원 등)를 위한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조직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을 얻고, 완주의 사회적경제 도반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 교육일시 | 2025.10.15(수) ~ 11.26(수)

매주 수요일 15시~18시

| 교육장소 | 완주경제센터 2층 교육실

| 신청기간 | 2025.9.9.(화) ~ 10.10(금)

| 참여대상 | 완주군 내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임직원, 조합원 등

| 신청방법 | 구글신청(<https://bit.ly/사경아카데미>)

전화신청(안사넷 063-905-5050)

**10/15(수) 15시~18시**  
제1강

**10/22(수) 15시~18시**  
제2강

**깊은 협동을 위하여 1**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 북토크 -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회장

**깊은 협동을 위하여 2**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까지 -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회장

**10/29(수) 15시~18시**  
제3강

**11/5(수) 15시~18시**  
제4강

**사회적경제 활동에 날개 달기 1**  
- 후대전화로 소스 영상 만들기 -  
이명환 완주미디어센터 창작지원담당

**사회적경제 활동에 날개 달기 2**  
- 클쓰기 기초: 문장에 해로운 것들 -  
안종환 완주미디어센터 센터장

**11/12(수) 15시~18시**  
제5강

**11/19(수) 15시~18시**  
제6강

**사회적경제에서 챗 GPT 활용하기 1**  
- 사업계획서 작성(노트북 필수 지참) -  
오수정 레디미디어지텔교육연구소 대표

**사회적경제에서 챗 GPT 활용하기 2**  
- 일상 업무 활용(노트북 필수 지참) -  
오수정 레디미디어지텔교육연구소 대표

**제7강**

**11/26(수) 15시~18시**  
사회적경제 정세분석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 필독서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를  
반드시 읽고 참여해 주세요.

\* 서로의 관계증진을 위해  
교육 후에 식사 겸 뒤돌이를 진행합니다^^



# 시원하게 마시는 자연탄산 막걸리!

효모가 만드는 자연 탄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 자연 탄산
- 100% 국내산 쌀
- 무감미료



# 후회 없이 소과를 즐기세요

6도 탄산막걸리 | 저온발효 | 무감미료